

배수정 서양화가 '아프리카 그림일기전'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29일까지 아프리카서 적어간 일기 토대로 그린 작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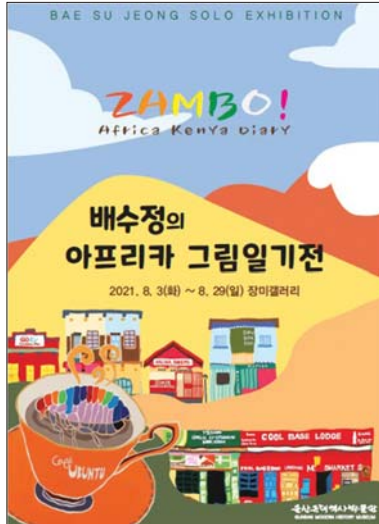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29일까지 박물관 분관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에서 서양화가 배수정 개인전 '아프리카 그림일기'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수정 작가는 군산대학교 미술학과 및 군산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 디자인학부 석사(서양화 전공)를 졸업하고, 현재는 군산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특별상, 전라북도 미술대전 특선 등 다수의 수상경력과 개인전 외 그룹전 53회를 참여했다.

배 작가의 이번 개인전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1년간 매달 하나씩 적어간 일기 12장을 토대로 그린 작품들로 어린이가 같은 느낌으로 아프리카를 표현했다.

'폭풍속의 길', 'I'm happy', '봄바람' 3작품은 자화상을 표현했으며, 아픈 발을 치료받기 위해 산을 넘어온 아이를 만났던 날을 그린 '길'로 가는 길', 아프리카 케냐의 기후와 환경, 그리고 그곳 아이들을 통해 느낀 감정들을 표현한 작품 '소풍', '휴식' 등 서양화 20여점이 전시됐다.

박물관관과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참여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박물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개하여 직접 전시관을 찾지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29일까지 박물관 분관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에서 서양화가 배수정 개인전 '아프리카 그림일기'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못하는 이들에게도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미갤러리는 군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개인전 등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대 유경민 교수, '선교사의 번역가들' 英 출간

한국·중국·일본·타이완 학자 동아시아 기독교 문헌 번역상 문제 논의

전주대학교 유경민 교수(국어교육과)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선교사 번역가들: 동아시아의 기독교 문헌 번역' 책이 인문과학 분야 최대 규모의 글로벌 학술 출판사인 영국의 루트리지(Routledge) 출판사에서 출간됐다고 4일 밝혔다.



저자는 "독자들이 동아시아의 기독교 문헌 자료에 대한 다차원적 기술과 분석 방법을 볼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동서양의 학자들이 협업하며 동아시아에 서양 선교사들이 남긴 성과와 발자취를 실증적으로 밝혀 나가는 연구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경민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2년부터 3년 동안 '한국어 성경 번역과 한국어 번역 성경 연구'를 수행하면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국어 성경 자료의 국어사적 가치를 입증해 성경 텍스트를 근대국어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에는 '역대 한국어 성경의 음역어 대조와 저본 판정 방법 연구'가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에 선정돼 성경의 음역 표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휴가철 맞이 10% 할인 프로모션

31일까지 30종 선별 할인

한국전통문화재단(원장 김선태)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10% 할인 프로모션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전주공예품전시관 판매관에 입점된 공예품 700여 품목 중 여름 시즌에 적합한 상품 30종을 선별해 10% 할인하는 프로모션이다.

프로모션 상품은 ▲여름철 생필품 부채(19종) ▲천연 보냉 소재 대나무를 활용한 죽공예(6종) ▲시원한 느낌을 전하는 유리공예(5종) 상품으로 무더위를 식혀주는 여름 시즌 공예품으로 구성됐다.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방화선 장인의 '본견 태극 단선', 박계호 장인의 '합죽선(우각선)',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51호 낙종장 이신입 장인의 '산수화 15월'도 프로모션에 포함됐다.

상품은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 판매관 및 온라인 쇼핑몰 '명인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전시관은 평소 선물용으로 공예품을 구매하는 고객 수요에 맞춰 무료 포장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알록이달록이 소주잔.

한편 전주공예품전시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처로 매장에서 직접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한 김혜원 공예문화산업팀장은 "무더위를 잊게 해줄 여름철 공예품으로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코로나에 폭염

까지 맞물린 올 여름, 시원한 쇼핑으로 잠시나마 마음에 여유를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www.jonjucraft.or.kr) 또는 공예문화산업팀(063-281-1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민예술촌이 지난 7월부터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대 및 제반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2021 군산시민예술촌 지역예술인 대관지원사업'에서 6개 단체를 선정했다.

군산시민예술촌, 지역예술인 대관지원사업 6개 단체 선정

군산시는 군산시민예술촌이 지난 7월부터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대 및 제반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2021 군산시민예술촌 지역예술인 대관지원사업'에서 6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는 밴드 분야의 수시탑밴드, 연극 분야의 극단동당에, 업씨어터, 청년극단 브릿지, 전통음악 분야의 군산전통문화연구원, 미술의 문백토리메지오로 총 6개 단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군산시민예술촌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선정 단

체는 군산시민예술촌의 기본 시설 무료 대관과 기획 전반의 컨설팅, SNS 홍보를 지원받게 되며, 군산 지역기업가와 함께 연계돼 소정의 창작활동비도 지급받게 된다.

박양기 시민예술촌장은 "군산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에 작은 보탬이 되고, 본 공모사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군산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